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한강 소설처럼 '채식주의자'가 된다면?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그의 대표소설인 '채식주의자'가 주목받으면서 채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혜가 어느 날 피로 범벅이 된 고깃덩어리를 먹는 꿈을 꾸고 난 뒤 육식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유, 유제품, 달걀, 어패류, 조류 등 어떠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세밀하게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락토, 오보, 락토-오보,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언, 비건 등이다.

이중 흔히 많이 알려진 '비건'은 동물의 알이나 우유, 유제품, 꿀처럼 동물을 착취해 얻은 식품은 모두 배제하고 완전한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뜻한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채식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며 "이번 한강 사례를 시작으로, 채식을 존중하는 문화 등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SnackNews #채식주의자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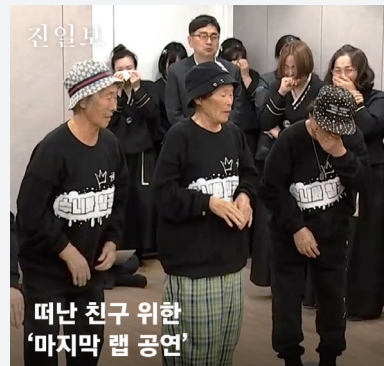


내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부분이 삭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렸던 반란 폭도·반란군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되고 문장이 새롭게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5종에서 여수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이 확인되면서 희생자 유족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왜곡 논란 등 반발이 잇따랐다.

우편물 배달 사칭

[Web 발신]
고객님 안녕하세요.
배송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수정해주세요.
<http://www.abcd.com>

우편 집배원을 사칭해 '우편 도착안내서'를 작성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SKT가 주의를 당부했다. 우편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으로서, 사칭범은 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을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는 정채불명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고객센터로 배달 사실을 문의하거나 경찰 등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제공된 URL을 눌렀다면 곧장 112로 신고해야 한다.



떠난 친구 위한 '마지막 랩 공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인터뷰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 8명이 결성한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인 서무석 할머니의 장례식장, 멤버들은 병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체인 목걸이를 두른 '힙한 모습으로 영정사진 앞에서 대표곡인 '에브리바디해피'를 불렀다. 먼저 떠난 동료들을 위한 추모 공연이다. 서 할머니는 칠순이 넘어 칠곡군 성인문화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수니와칠공주'를 결성했다. 서 할머니의 25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인 이필선 할머니는 편지를 통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랩 많이 부르고 있거라.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강 작가가 스웨덴 공영방송 SVT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작가는 "지금 당장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고 이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역사적 사건을 직면함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역사를 통해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다. 적어도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건, 우리가 배웠다면 알 수 있는 결론이다"고 밝혔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